

슬로시티 토지길

■ 코스 지도

소설 '토지'의 배경이 된 악양 일대를 걷는 코스



■ 오디오 가이드 리스트

구분	지명	주요내용	비고
1	평사리공원	소설 토지의 시작	민속
2	동정호와 부부송	악양 들판	설화
3	최참판댁	소설 토지 속 최참판댁	민속
4	십일천송	악양의 노송들	생태 / 민속
5	취간림	녹사 한유한 선생과 취간정 이야기	생태
6	조씨고가	조씨고가의 유래 및 연못 이야기	민속

1. 평사리 공원

하동하면 섬진강과 화개장터 그리고 소설 '토지'가 떠 오릅니다.

지리산의 장엄한 산줄기 사이로 유유히 흐른 섬진강이 만든 비옥한 땅.

이 땅이 있었기에 '토지'라는 거대한 서사시가 쓰여질 수 있었던 거죠.

물론 그 서사시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소설 '토지' 속에서 격동의 삶을 살아가는 최참판댁의 손녀딸인 최서희라고 합니다.

소설 토지를 테마로 한 '슬로시티 토지길'을 여러분과 함께 걸을 '토지'의 주인공이죠.

드라마에서 보여줬던 이미지 때문인지 저를 굉장히 강한 여자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박경리 선생님의 원작에서도 빼어난 외모에 명석한 두뇌를 가진 양반집 딸이지만 어릴 때 겪은 풍파로 인해 점점 냉정하고 독한 캐릭터로 변해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길상이와의 진정한 사랑을 통해 점점 마음의 문을 열게 되죠.

'토지'는 한국 대하소설의 최고봉, 장장 26년간의 집필, 등장인물 700명, 세 번의 드라마화, 전 세계 20여개 국어로 번역되는 등 수치로만 표현하기에도 숨이 찰만큼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소설 '토지'는 어떻게 이곳을 배경으로 만들어 진 것 일까요?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죠?

'박경리 선생님의 고향이 하동이신가요?' 아닙니다.

'그럼 이곳에서 생활을 하셨거나 친척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박경리 선생의 고향도 아니고, 선생이 사셨던 곳도 아닌, 아무런 연고지도 없는 이 하동이 '토지'의 배경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궁금하시죠?

문화관광해설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지리산이 있고요, 앞으로는 섬진강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80만 평의 넓은 들판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토지 배경지로 삼으신 거예요. 토지의 내용을 보시면 동학혁명부터 시작해서 815 해방까지의 현대사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동학혁명군들의 은둔지였던 지리산과 중국과 만주로 이어지는 교통수단이 되었던 섬진강, 그 다음에 토지라는 제목에 딱 맞는 넓은 토지등의 조건들이 딱 맞았기 때문에 이곳이 토지의 배경지로 선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품 지리적 배경이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넓은 토지가 있는 곳이었는데요, 경남에서는 넓은 들판을 만나는 것이 참 어려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따님과 함께 함께 '구례 화엄사'에 들렀다가 저기 차가 지나가는 국도 보이시죠? 바로 그 길을 지나게 되신 거예요. 지리산 앞에 펼쳐진 넓은 들판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섬진강까지 흐르니 작가적 영감이 딱 떠오른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 뒤에 강원도 원주로 가서서 토지라는 대하 소설을 쓰게 되신 거랍니다.

자, 이쯤 되면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그럼 하동슬로시티 시작인 이 곳 평사리 공원을 둘러볼까요?

섬진강 모래톱이 드넓게 펼쳐진 이곳은 지금이야 섬진강을 따라 자연을 즐길 수 있게 공원으로 조성돼 있지만 원래는 개치 나루터라 불리던 전략의 요충지였습니다.

평사리는 백제와 신라의 경계가 되는 지역이었기에 잦은 충돌이 있었고,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섬진강을 거슬러 오르는 왜군들의 침략도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또한 이 곳은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을 견제하는 세력들은 장군을 모함하고, 결국 이순신 장군은 한양에서 경남 합천까지의 백의종군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 때 이순신 장군이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넘어서면서 처음 이곳에서 하루를 묵었다고 전해집니다.

최근엔 풍광이 좋아서 오토캠핑 명소로도 사랑받는 이 곳 평사리 공원에서 ‘슬로시티 토지길’은 시작됩니다.

2. 동정호와 부부송

이곳에 서면 많은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악양들판위에 그림처럼 자리하고 있는 호수.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호수는 동정호입니다.

천 년 동안 마르지 않은 오래 된 이 호수에는 달이 비치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동정추월’이라고도 불립니다. 주변이 늪지대라서 청둥오리와 붕어, 식물등이 아주 많이 살고 있는 자연의 보고와도 같은 곳입니다.

어쨌든 동정호는 정비를 하면서 규모가 조금 축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아름답네요.

원래 이 호수의 이름은 ‘동정호’가 아니었습니다.

삼국시대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침략할 때 당나라의 소정방이 와서 이곳에 머무르면서 이름이 ‘동정호’가 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곳 호수의 모습이 당나라 악양의 호수 ‘동정호’의 모습과 흡사하여 같은 이름을 붙이고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이곳으로와 향수를 달랬다고 하네요.

저도 만주에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을 때 너른 이 악양 들판 곳곳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옛말에 ‘악양거지는 배끓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드는 가을에 악양 들판에 서 있으면 밥을 먹지 않고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박경리 선생께서도 이 들판을 보고 작품의 제목을 ‘토지’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이 들판에는 우리의 시선을 붙잡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들판 한 가운데 소나무 보이시죠?

여느 소나무들과는 달리 허리가 꼳꼳한 그 소나무들은 부부송이라 불리는데요, 그 부부송 옆에는 묘가 있습니다.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어느 부부의 합장묘라고 전해지는데요 얼마나 금실이 좋았던지 죽어서도 함께 하고픈 부부의 마음을 이 두 그루의 소나무로 표현하고 있네요.

자세히 보면 정말 소나무 한 그루는 좀 굵고 다른 한 그루는 가늘어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곳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드라마 ‘토지’를 챙겨보셨던 분들은 눈치를 챘을지도 모르겠네요.

이곳은 저와 나중에 제 남편이 되는 길상이에게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저희 둘을 상징할 때 이 부부송이 화면에 자주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서희와 길상이 나무’라고도 불린답니다.

3. 최참판댁

이제 가 볼 곳은요 저희집 최참판댁이에요.

하동 평사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이죠. 근데 다들 아시죠?

최참판이라는 인물은 어디까지나 소설 속의 허구인물이라는 것어요.

소설 '토지' 속의 인물묘사가 워낙 뛰어나고 내용도 탄탄해서 많은 분들이 최참판을 실존인물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 인물이 현실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설 속 배경지를 그대로 재연한 공간은 있지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곳입니다.

작품 속에서 제가 어린 시절 살았던 곳이고, 나중에 되찾게 되는 이곳은 소설 속 그 모습 그대로 지어졌는데요, 안채와 사랑채, 초당과 별당, 행랑채 등 조선시대 전형적인 양반집의 모습을 갖추고 있죠.

특히 최참판댁 주변에는 드라마 세트장으로 사용됐던 가옥들이 재구성돼 있어 그 풍경이 더욱 실감나는데요, 이곳에는 평사리 문학관과 한옥체험관, 그리고 장터등이 들어서 있어 진짜 마을을 연상케도 한답니다. 한옥체험관에서는 1박2일 체험도 가능하니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예약해 두시는 것도 좋겠네요.

저희집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니 좀 쑥스러워서 저희집이 어떻게 지어지게 되었는지는 문화관광해설사의 목소리 살짝 빌려볼게요.

그 토지라는 소설이 많이 알려지고 유명해 졌어요. 많은 분들이 이쪽이 배경지이다 보니까 많은 문의를 해오세요. 하동군에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배경지인 이곳에서 우리가 소설 속의 공간을 재연해서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1998년에 첫 삽을 떠서 2000년도에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오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 같은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찍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작년에 저희 하동군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새롭게 변화됐고 저 최참판댁은 선생님의 작품을 토대로 해서 지어진 공간이에요.

이렇게 나름 열심히 준비한 이곳, 그렇다면 작가 박경리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시죠? 2000년도 완공된 후 박경리 선생은 '토지 문학제'에 초대를 받아 오셨는데요,

그 때 이곳을 처음 들어와 아주 많이 놀라셨다고 해요.

집필하시는 동안 박경리 선생은 이곳 악양에 단 한 번도 와보질 않으셨답니다

근데 이렇게 최참판댁이 지어진 후 와서 보시고는 작품 활동을 하면서 상상했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재연이 되어 있어 아주 큰 감동을 받으셨다고 해요.

작품을 탈고 했을 때의 그 전율과 똑같은 전율을 이곳 최참판댁의 대문을 넘으시면서 느끼셨다고 하니 이곳이 얼마나 작가의 영감과 통했는지 알 수 있겠죠?

최참판댁은 평일에도 사람들이 참 많이 찾는데요, 이곳을 찾는 분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특히 이곳을 방문하는 분들의 특징은 한 번만 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곳을 찾ند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저희들도 참 신기한 게 한두 번 오셨으면 되잖아요. 옛날 집인데 재밌는 곳도 아니고 근데 네 번이고 다섯 번이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다른 분들도 모시고 오시고 계절마다 또 오시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하동군에서 저 앞에 보이는 백운산, 뽕족한 산 있죠?
저 산은 전남 광양에 속하는 백운산인데요, 하동에서는 저 백운산이 보이지 않는 곳은 길지라고 인정을 안 해준대요. 근데 이곳에서 보시면 지금 보시다시피 저 넓은 들판이 보이고, 섬진강이 보이고, 그리고 앞에 백운산이 정상까지 뚜렷하게 보여요.
바로 이곳이 길지라서 오시는 분들이 또 오시고 또 오시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설 '토지'를 떠 올리며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이곳 악양 들판 일대에서 명당자리의 기운을 받기 위해 오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네요

게다가 이 최참판댁 주변은 철철이 달라지는 풍광이 아주 매력적인 곳입니다.

봄이면 꽃들의 향연이 펼쳐지고 가을이면 황금들녘을 자랑하는 이 곳.

역시 소설 '토지'의 진짜 주인공은 '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 취간림

악양들판의 북쪽엔 정서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곳에는 고려 말 충신 녹사 한유한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만든 '취간림' 이라는 아담한 숲이 있습니다.

이 곳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녹사 선생에 대해선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고려가 망할 것을 미리 예견했던 녹사 선생은 악양현 외둔마을에 낙향해서 서당을 짓고 후학 양성을 하며 여유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사리 강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어명을 받고 조정에서 벼슬을 내려주겠다고 사자가 내려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녹사선생은 의관을 갖추고 오겠다며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어명을 받은 사자는 아차 싶어 집으로 들어갔으나 벼슬에 뜻이 없던 녹사 한유한 선생은 이미 뒷문으로 사라져버리고 난 뒤 었습니다

새로이 들어선 조선왕조가 그의 능력을 탐해 벼슬을 내렸으나 고려왕조의 녹을 먹었던 한유한 선생은 끝까지 지조를 지킨것이죠.

그 후 선생을 기리는 뜻으로 '모한정'을 건립하려고 여러차례 시도가 있었으나 여의치 않았고 마침내 1931년에 '모한정'을 건립하고 그 후에 그것을 '취간정'이라 이름을 붙였는데 그때부터 숲의 이름도 '취간림'이라 바뀌어 불렸습니다.

현재는 정자는 사라지고 '취간림'만이 남아있습니다

취간림의 뜻은 물총새 '취'에 산골 물 '간', 수풀 '림'을 써서 '물가에 물총새가 지저귀는 숲'으로 풀이할 수 있는데, 그만큼 맑고 깨끗해서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수령이 족히 500년은 되는 향나무 숲에 작은 개울이 흐르니 이곳에 앉아 있으면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과 나무가 뿜어내는 향기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깨끗해질 것만 같네요

먼 길을 걸어온 나그네의 고단함을 달래주기에는 안성맞춤이죠.

하지만 이곳은 그리 여유롭게 있을 곳만은 아닙니다.

이 숲 한 가운데에는 우리의 마음을 경건하게 하는 탑들과 비석들이 있는데요, 우리의 아픈 역사를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중에 하나는 '악양 항일투사 기념탑'으로 일제 강점기 때 지리산 일대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순국한 수많은 항일독립투사의 넋을 기리는 탑이랍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의 항일투사를 찾는 작업을 하는 '정재상 경남 독립운동연구소장'은 이들을 위해 2008년에 이 기념탑을 세웠다고 해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채 오로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사라져 간 의병들을 찾아 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정재상 소장님'의 노력은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두 갈래로 나뉘어 화강암이 태극기를 떠받치는 형상의 기념탑에는 독립유공자 3백여 명의 명단을 새겨 넣고 항일투쟁 사실이 입증된 김의흥, 박매지 의병장 등을 기리는 비석도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5. 십일천송

‘서희와 길상이의 나무’라는 하는 부부송도 보셨지만, 이 곳 토지길에는 독특한 소나무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나무는 노전마을의 ‘십일천송’이죠.

‘십일천송’은 열 한 그루의 소나무가 모두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다는 뜻인데요,

‘십일천송’을 멀리서 보면 마치 넓게 퍼진 한 그루의 소나무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열 한 그루의 소나무가 둥그렇게 모여서 오순도순 살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길을 전혀 타지 않고 이곳에만 작은 소나무 군락을 형성한 이 나무들은 약 150년의 나이를 먹은 노송들입니다.

열 한 그루의 나무가 약 150년 동안 마치 하나의 나무처럼 살아온 것이죠

이곳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축지리 대축마을의 ‘문암송’도 하동의 자랑거리입니다.

소나무가 갈라진 바위 위에서 자라고 있는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희한한 모습 때문인지 이 지역주민들은 문암송을 귀하게 여겨 매년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작은 알 수는 없으나 1920년경 대홍수가 일어날 당시 아미산에서 큰 산사태가 일어났는데 문암송이 토사의 방향을 바꾸어 놓아서 대축마을이 피해를 입지 않은 다음부터라고 전해입니다.

2008년 천연기념물 491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는 이 나무는 마치 큰 바위에 걸터앉아 악양 들녘을 바라보고 있는 신선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위에 의지하여 살았던 이 나무도 세월이 지나 바위가 갈라지려하자 바위를 뿌리로 칭칭 감아 바위를 고정하여 주면서 약 600년 동안 공생을 하고 있습니다.

악양의 소나무들을 보고 있으면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저절로 배우게 됩니다.

6. 조씨고가

하동 슬로시티 토지길의 마지막 구간는 조씨 고가입니다.

이곳은 소설 '토지'의 일부 모델이 된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조씨 고가를 향하는 길목엔 나그네를 살갑게 맞이하는 돌담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돌담길은 악양면 초입의 개치마을 등 여덟 개 자연마을의 돌담길 3.1km 정도를 복원 하면서 이곳을 찾는 나그네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돌담길은 겨울에는 돌담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 좋고 여름에는 담쟁이 넝쿨로 뒤덮여 나뭇의 운치를 뽐냅니다.

특히 돌담과 돌담이 연결되는 담벼락에는 다양한 벽화들이 그려져 있어, 지나는 이의 발걸음을 잠시 붙잡기도 합니다.

그 걸음의 끝에서 조씨 고가를 만나게 되는데요, 조씨 고가는 조선 개국공신이며 영의정을 지낸 '조준 선생'의 직계손인 '조재희 선생'이 낙향해 지은 집입니다.

완공까지 무려 16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을 정도로 정성을 가득 담은 고가인데요 당시 개항으로 신문물들이 들어 올 때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이곳 후손들이 큰 부를 쌓았다고 하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조부자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동학혁명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 집의 사랑채와 후원에 초당, 사당 등이 불에 타 사라지고 지금은 안채와 행랑채 그리고 연못만이 남아 있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 중 이 고가에서 가장 신경 써서 볼 곳은 연못입니다

연못 한 귀퉁이에 예전에 냉장고처럼 쓰였던 저온 창고가 있거든요.

이 창고에서 김치 같은 것을 보관했다고 하니, 요즘 김치냉장고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또한 안채 다락에는 예전에 사용했던 장판지가 남아 있어, 양반가옥의 소품들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안채 앞에 3단 돌계단 석축의 크기만 보더라도 당시 권세가 얼마나 어마 어마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조씨집안의 후손이 살고 계신데요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설명도 해주시고, 집안 구경도 시켜주신다고 하니 토지길에 들으셨으면 이곳도 한 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곳 이야말로 악양면 평사리를 대표하는 고가이니깐요

자, 이렇게 해서 저 서희와 함께 하동 슬로시티 토지길을 다 둘러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하동은 그냥 볼 때는 그저 조용한, 어느 곳에나 있는 평범한 시골 동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잠깐이라도 머물러보신다면 그 멋과 맛을 알게 되죠. 어떤 멋과 맛이냐구요?

하동을 찾는 분들에게 하동군은 처음에 딱 들어서면 그냥 시골같아요. 근데 머물면 머물수록 정이가고 곳곳에 역사가 아닌 곳이 없고, 신화가 아닌 곳이 없어요. 하동이 낳은 이병주 작가님은 '햇빛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고 했어요.

그만큼 하동은 섬진강과 지리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역사가 있고, 이야깃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금방 스치고 지나면 모르는 것들이 여기 머물면 머물수록 정말 많은 것을 감동하게 되고 거기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귀농인들이 많아요, 특히 이 곳 악양면에 귀농인들이 많죠 또 이곳은 뭐랄까 이 곳 사람들이 정이 많아서 굉장히 끌리는 곳인가 봐요

소설 '토지' 속 격변했던 우리 내 역사속에서 저는 늘 하동 악양면 평사리의 풍경을 떠올리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긴 세월이 흐른 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희망을 가지고 다시 찾아 온 이 곳은 절대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악양의 넓은 들판과 섬진강이 흐르는 '슬로시티 토지길'은 소설 속 주인공들과 함께 점차 새로운 생명력을 더해갑니다.